

part 1.

안개처럼 이슬처럼 스러져갈 인생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

1968년 3월, 이재록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일이다. 결혼 기념 집들이를 하면서 독한 술을 과음한 탓으로 위장 마비 증세가 찾아왔다. 그 후 점점 위장기능이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났다. 약 7년 동안 병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병세는 깊어만 갔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자 곳을 하기도 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도 더 이상 아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음을 알자 결국 “차라리 죽는 것이 효도다” 하며 통곡하셨다.

이렇게 죽음의 그늘 속에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다. 류마티 증성 관절염까지 겹쳐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둘째 누나가 찾아와 현신에 제단 길 안내를 부탁했다. 평소 막내 동생을 전도하고자 기회를 찾던 누나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었다.

1974년 4월, 그는 거듭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누나와 함께 당시 서대문에 있던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그냥 구경하기가 민망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평소 그는 중이염이 심했기에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지팡이 도움 없이 거뜬히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1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의 증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온몸에 현저하게 나타난 변화를 통해 자신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음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

무신론자인 그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92 세계성령화대성회



'93 워싱턴지역 복음화대성회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알레한드로 톨레도 페루 前 대통령과의 환담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part 2.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재록 목사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틈만 나면 부흥성회에 참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에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가며 명심했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 불같이 기도하면서 작정해 금식하기도 했다. 그는 생각 속에 범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알게 됐다. 이에 마음의 죄성까지 뿌리 뽑기 위해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우치는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우침 받고자 부흥회가 열리는 곳마다 참석해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성경 상의 많은 난해구절을 풀어 달라고 금식과 기도로 매달리며 야곱과 같이 씨름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1982년 7월, 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이재록 전도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우쳐 주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치료와 변화를 체험했고 영적인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다.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의 역사들이 계속됐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 질병 치유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다.

1993년 2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교회에 만민중앙교회가 포함됐다(조선일보 보도). 그 후 미국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이재록 목사는 일본, 탄자니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연합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다.

